

정전 후 66년만에...한반도 평화·비핵화 해결 기대감



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잡은 북미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미 세기의 회동...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기의 만남을 가졌다. 남북미 3국 정상이 한 곳에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처음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북한 땅에 발을 내디뎠다.

1953년 7월 6·25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이후 66년 만이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이다. 또 전쟁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진 두 나라다. 그렇기에 미북 정상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만남이 '예측불가형' 지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한 케미스트리에 의해, 누구도 예상 못한 '변개 회동'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상들의 결단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셈으로 '뚝다운' 방식의 접근이 가지는 유효성을 보여줬다.

또 문 대통령을 포함한 남북미 3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장면도 상징성이 크다. 남북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일 자체가 사상 처음인데다 작년 초 이래 한반도 정세 변화를 선도해온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북미 및 남북미 정상 회동은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허무하게 끝난 이후 한반도 정세가 미묘하게 흘러가던 시점에 성사돼 기대감을 키운다.

이 때문에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정세 양상을 보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분단 후 첫 남북미 정상 한곳서 대화

예상 못한 '변개 회동'...북미정상 상호 신뢰 확인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논의 탄력 받을지 주목

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다진 것은 일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북미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상호 신뢰를 확인한 만큼 극단적인 상황 악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측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실무팀을 꾸리기로 한 만큼 기존 스티븐 비건-김혁철 특별대표 라인 때 보다는 좀 더 무게가 실린 실무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협상의 결과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섰던 두 정상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실무협상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연내에 미국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와 더불어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작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을 들여온 3차 또는 4차(남북미중)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그럼에도 이번 판문점 회동이 최대 현안인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간의 견해 차이를 일거에 해소할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간에 실질적인 비핵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번 이벤트가 한반도 관련 대화 흐름에 동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동맹·비핵화 등 주제 98분간 대화

문 대통령-트럼프 청와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98분간 만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상봉' 조율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미 정상은 "평화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는 느낌" (문 대통령), "느낌이 좋다" (트럼프 대통령)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 이후 80일 만에 청와대에서 다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오전 11시 14분 '1+4 소인수 회담'으로 이날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자리했다.

회담이 시작하자 두 정상 모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고 62분간 이어진 소인수 회담을 마친 뒤 양 정상은 12시 22분부터 업무모임을 겸한 확대회담에 돌입해 36분간 다시 머리를 맞댔다.

총 98분간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회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더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전선언이 있는 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공식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께 감사 말

문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피스메이커"

트럼프 "한국 왔으니 김위원장에 인사 어쩌냐"

숨을 드린다"며 "오늘의 걸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됐다"며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불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은 평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기대에 가득 찬 응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영변의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20 회의차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반드시 들러 문 대통령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여기까지 왔으니 '김 위원장에게 인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김 위원장에게도 바로 반응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라며 "저와 김 위원장은 좋은 케미스트리(조합)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취임했을 때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많은 일이 있었다. 남북 양쪽에 안 좋은 상황이 많이 펼쳐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임기 동안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오울렛 초소'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오울렛 초소'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